北 최고 예우로 환대… 김정은 면담 가능성

■ 이희호·현정은 조문단 육로 방북

李여사 남북관계 개선 기대

숙소는 백화원초대소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6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통제선 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거쳐 방북했다.

이 여사의 육로 방북은 2007년 8월에 이어 두 번째. 하지만 이번은 소회가 남달라 보였다. 금강산 관광차 방북했던 당시와 달리 이번은 김 위원장 조문을 위한 방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8년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 역시 그때와는 판이한 상태다. 날씨마저 이날은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를 기록했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편과 함께 김 위원장을 만났던 이 여사로는 여러 생각이 들 법한 상황인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여사는 이날 오전 7시 동교동 자택을 나서면서 "잠을 잘 못 잤다"는 말로 긴장감을 내비쳤다고 김대중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이 전했다.

최 공보실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 퇴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김 대통령 내외를 초청하면서 그때마다 '좋은 계절에 오시라'고 했는데 여사님이 결국 조문으로 그 방문을 대신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여사는 홍업·홍걸씨 등 가족을 대동하고 이날 오전 8시20분께 출입사무소에 도착했다.

이 여사는 귀빈실에서 먼저 와 기다리던 현정은 회장 일행과 인사를 나누고 통일부 당국자로부터 간단한 출·입경 수속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포토라인 앞에 섰다.

포토라인에서는 이 여사의 나이(89)를 고려한 것인지 이 여사 옆에선 윤철구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이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는 이 여사의 짤막한 메시지를 대독하는 것으로 조문 방북 소감을 대신했다.

윤 사무총장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기대하는지, 정부의 메시지를 가져가는지 등의 질문에 "순수 조문이다"라는 말만 반복하고는 서둘러 포토라인을 떠났다.

현 회장은 아무런 언급 없이 침착한 표정으로 이 여사 옆에 서 있었다.

취재진을 뒤로하고 출경장으로 들어간 조문단은 승용차 4대와 버스 1대를 나눠타고 20여 분도 안돼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북측 지역으로 들어갔다.

북측 통행검사소에서는 북한 리종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이 민간 조문단 일행을 영접했으며, 조선중앙통신은 오후 1시20분께 조문단 일행의 평양 도착 소식을 보도했다.

조문단의 숙소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묵었던 백화원초대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양 대성구역 임흥동에 위치한 최고급 영빈관인 백화원초대소는 2000년과 2007년 제1,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숙소였으며 2002년 9월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진 장소이기도 하다.

최 공보실장은 이에 대해 "북측이 이 여사 일행을 백화원초대소에 모신 것은 최고의 예우를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각에서는 조문단이 백화원 초대소에 머무는 것은 김정은 부위원장과의 접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북측의 관례상 접견은 오후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탑승한 차량행렬이 26일 오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떠나 평양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전 선거사범 처벌 기준 만든다

2012년 법무부 업무보고

살인 공소시효 폐지

강도죄도 전자 발찌

정부는 내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만들어 미리 공개키로 했다.

또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고 아동, 장애인에게는 진술조력인제를 도입한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평소 준법실적이 좋은 기업인에게 형벌 일부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추진한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내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주요 선거범죄의 입건 또는 구속 기준을 선거 이전에 정비해 사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불법성 판단기준을 연구, 체계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선거부터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태스크포스(TF)와 수사전담반을 설치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5개국 재외공관에는 검사도 파견한다.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틀도 만든다.

법무부는 살인, 강간살인, 강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흉악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강도죄도 추가한다.

성폭력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내년 5월부터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채운다.

성폭력 피해를 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해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지원을 하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더불어 수사·재판과정에 참여해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함께 운용한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행위자에게 형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도 세웠다. 조세·환경·산재 등의 분야에서는 평소 준법실적을 참작해 벌금액·구형량을 낮추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처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호남 亞대표 문화관광 중추지역 육성

■ 제3차 관광개발계획 살펴보니

광주- 느끼고 싶은 문화예술도시

전남- 해양·섬 관광의 중심지로

전북- 새만금 국제 관광거점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이 내년부터 10년간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중추지역으로 육성된다. 아울러 3개 시·도가 남해안과 서해안 초광역 관광벨트로 설정되면서 관광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담은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년)'을 수립해 26일 발표했다.

3차 기본계획은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선진 관광'을 계획·비전으로 설정했다. 10년 동안 한국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고하게 다지면서 관광산업을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 고유의 문화관광 자원의 다양성을 활용하는 창조관광을 비롯해 녹색관광, 생활관광, 공정관광, 경제관광 등 5대 목표를 설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7개 광역 관광권, 16개 시도 관광권을 계획권역으로 설정했으며, 이 같은 계획권역과 연계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 초광역 관광벨트를 설정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16개 시도관광권이 기본계획권역이었다.

7대 광역 관광권은 ▲수도 관광권(서울·경기·인천)-동북아 관광 허브 ▲충청 관광권(대전·충북·충남)-과학기술과 관광 융합 ▲호남관광권(광주·전남·전북)-문화관광 중추지역 ▲대구·경북-역사관광 거점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해양레저·크루즈관광 중추지역 ▲강원-생태·웰빙관광 및 동계스포츠 메카 ▲제주관광권-자연유산관광 및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으로 나뉜다.

호남관광권의 경우 광주는 느끼고 싶은 문화예술 관광도시, 전남은 남도 문화와 해양·섬 관광의 중심지로, 전북은 새만금 중심의 차세대 국제관광거점으로 육성된다. 또한, 전통과 현대 문화가 조화된 아시아 대표 문화관광 축으로 설정되고, 새만금·서남해안을 연계한 국제수준의 해양관광명소로 육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호남 고유의 문화관광자원인 음식과 국악, 한지 등의 브랜드화도 이뤄역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계획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 초광역 관광벨트를 설정했다. 초광역 관광벨트는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한반도평화생태, 백두대간생태문화, 강변생태문화관광벨트로 이뤄졌다.

전남과 전북이 포함되는 서해안 관광벨트는 인천과 태안, 새만금, 목포 등을 연계하는 해양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인 아라뱃길 연계 루트 등을 개발하며, 동해안 관광벨트에서는 국제관광 거점 조성과 휴양·헬스케어 관광 육성이 이뤄진다. 또 전남이 포함되는 남해안 관광벨트는 국제크루즈항로 개설과 남중권(여수·순천·광양·사천·하동·남해) 중심으로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지역으로 육성된다. 강변생태문화 관광벨트는 강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관광자원화, 국민관광 및 여가공간으로의 활용 등 수변관광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